확고한 창조신앙의 무신론자

(시편 53:1~6)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확고한 창조신앙의 무신론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확고한 창조신앙의 무신론자'
창조를 굳게 믿지만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레우바는 미국의 과학자 천명을 대상으로 "기도에 응답하는 인격화된 신을 믿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응답자 41.8%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1차 대전이 있던 시기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래 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인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998년도에 네이처지가 이와 비슷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39.3%가 되었습니다. 생각만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치만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수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신론자 무신론자를 가릴 때에 주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 가장 유명한 석학 중에 리처드 도킨스가 유전자 중심의 관점으로 진화론을 대중화시킨 학자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뒤를 잇는다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빅뱅이론으로 창조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로 무신론과 유신론의 대결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의 구도 자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창조론을 믿는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부분에서도 창조를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뿐입니다. 사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의 논쟁 자

체가 기독교인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도신경 첫 구절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 크레도(credo)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심장'이라는 의미의 꼬르(cor)와 '준다'라는 의미를 기진 도(do)의 합성어로 곧 '심장을 꺼내어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 심장을 꺼내어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진화론자들 앞에서 창조론으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 무신론자들이 나타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등의 속성을 믿어도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속성을 다 믿더라도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이론으로는 갖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도, 실천적으로 마음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믿음이 없이는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꺼내어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적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연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나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셔 들이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기쁨의 동산 에덴이었습니다.
창조론자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으면서도 삶에서 에덴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쳤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의 문제를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창조신앙을 아무리 굳게 붙잡아도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의 유일한 대상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실천적 차원에서는 무신론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다시 한 번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전혀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가치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패했다, 어리석다, 가증하다, 더럽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명한 무신론자들에 더해 버틀런드 러셀, 알베르 카뮤, 장 폴 사르트르, 퀴리부인, 등은 세계적 석학이고 문학자이고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딱히 더럽고 부패했다고 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더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러한 사람들을 더럽고 부패했다고 말한 것일까요?
거기에 더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시를 지어 부를 때에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렇게나 없었던 것일까요? 오히려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말이 무엇이고, 혹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어리석고 부패하고 더럽고 가증하다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대체 누구를 어떤 상태를 무신론자로 보고 이런 시를 썼을지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마음을 외형화 시켜 만든 성소의 구조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의 가장 안쪽에는 법궤를 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법궤는 오직 성전이나 성소의 지성소에만 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성소 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둘 수 없고 법궤만을 두어야 했습니다. '지성소'라는 말은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생활 잡동사니들을 놔둔다면 그곳은 거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성소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만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지성소와 같아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곧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 채움의 대상의 이름을 붙잡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과 기쁨의 유일한 대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관계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

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모신 사람도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의 속성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태초에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기쁨이었던 이유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여놓은 자들이 살기 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를 들여놓듯이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한다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돈을 벌어야 기쁘고 만족하다고 믿는 자는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들여놓은 자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기쁘고 만족하다고 믿는 자는 마음의 지성소에 자녀를 들여놓은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이나 장수를 들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태를 어리석고 가증하고 부패하고 더러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법궤만이 들어있어야 할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생활 잡동사니들이 들어왔으니 더러워진 것입니다. 청결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대상이 된다고 믿는 자들이라면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지성소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불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나중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관계할 때에 첫 번째 속성은 내게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뻐할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 건강 출세 결혼 승진 등과 같은 것들이 기쁨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속성은 기쁨과는 무관합니다.
본래 돈은 적든 많든 기쁨과는 무관한 것이었는데 사탄은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무병장수함으로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훌륭한 배우자와 함께 할 때에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나 사건은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뒤집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사탄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알면서도, 정작 중요한 기쁨과 만족의 대상은 돈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이나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쁨과 만족으로 여길 때에 삶의 스릴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무신론자들을 이야기하며 부패하고 어리석고 가증하고 더럽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될 마음자리에 엉뚱한 것이 들어온 것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가득 찬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통해서 정리해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본문의 말씀대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시며 가지시는 첫 번째 속성이 인간의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것인데 그러한 속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업가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만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고 믿고 그 이름을 마음에 붙잡아야 합니다. 사업에는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속성 자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흑자가 나도 그것은 나의 만족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사업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로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자입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월급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은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일본이 우호적이 된다고 해서 기쁘고 만족스럽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입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만족함을 누려야 합니다. 일본을 생각할 때에 그 기쁨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섭리하심을 믿고 전지하심을 믿고 영원불변하심도 믿습니다. 이렇게 다 믿는데도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어리석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더럽다고 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곧 하나님 무신론자가 되게 하는 체질이고 사탄의 소원입니다.
마음 채움의 대상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 배우자 자녀 건강을 두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둠으로서 신격화가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는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둠으로서 신격화하여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맞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궤계였고 우리의 원죄의 체질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시크릿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만큼만 우리는 이 원죄의 체질을 이기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채우려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치는 그 순간 즉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동안에만 세상에서 마음을 채우려하는 체질이 중단되고,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참된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이 속성을 간과한다면 하나님에 속성에 대한 모든 믿음은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진정한 유신론자의 복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원죄의 체질을 억제하고 마음 채움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항상 향하므로 진정한 복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